

목포,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기존 방식 재개 결정

시민공청회·환경정책자문회의·현장평가단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사업·소각방식·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시민건강권 등 종합 검토

목포시가 민선 8기 출범 직후 전면 중단했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1년 여만에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스토커 방식으로 재추진된다. 목포시는 자원회수시설 전반에 대해 지난 1년 여간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에 대한 점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스토커·열분해 방식 소각처리방식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위해도 ▲시설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시의원을 비롯한 환경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했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차례의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소각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방식의 경우 기존 KDI에서 검토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목포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목포시의 엄격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투자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에 대한 점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스토커·열분

해 방식 소각처리방식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위해도 ▲시설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다.

또 시의원과 시민, 언론인 등과 함께 시민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소각 시설 현장을 다녀오고, 목포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소각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방식의 경우 기존 KDI에서 검토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목포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목포시의 엄격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투자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시의원과 시민, 언론인 등과 함께 시민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소각 시설 현장을 다녀오고, 목포시장을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작품전시회 30일까지 개최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광양문화원에서 '중단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주관 '2023 중단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전시회는 미술, 가족공예, 냅킨공예 등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특히 목공작품은 학생들 스스로 조립하고 완성해 더 뜻깊다.

전시회장을 방문한 한 방문객은 "여러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며 "편견을 뛰어 넘어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힐링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주란 교육나누리 회장은 "예술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전했다. 배수미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장은 "전시회를 통해 성인 장애 학습자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 노동면-화순 도암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보성군은 지난 20일 노동면과 화순군 도암면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상생·균형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노동면 직원 13명과 도암면 직원 13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상대 지자체에 교차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동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상호 기부 행사에는 총 15여 명이 참석했으며, 직원들은 양면(面)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주호 노동면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한 지역 간 소통·협력으로 노동면 뿐만 아니라, 보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 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 행안부 우수·모두에(愛)마을기업 동시 선정 쾌거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순천송광(주) 선정

순천시는 마을기업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순천송광(주)'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우수·모두에(愛)마을기업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 중 공동체가치를 실현한 마을기업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하여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매출로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는 마을기업을 모두에(愛)마을기업으로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우수 마을기업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순천의 특산물인 고들빼기를 6차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하였으며,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판로를 확보하고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 또한, 모두에(愛)마을기업으로 선

정된 '농업회사법인 순천송광(주)'은 마을 주민들이 주산물인 콩을 활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두부, 된장 등 전 통식품을 제조하여 2022년 연매출 15억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득창출과 공동체적 가치확산에 기여하며 기업성과 경쟁력을 갖춘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남해안남중권 시민문화벨트 조성 앞장

정인화 시장,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공동협력 요청



정인화 광양시장은 21일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22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남해안남중권 시민문화벨트 구축'과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본격적인 우주항공시대를 대비해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과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조기 제정을 공동건의문으로 채

택하여 남해안남중권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특히, 광양시는 남해안남중권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남해안남중권 민간단체 간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남중권 시민문화벨트 구축'을 제안해 광역형 문화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광양만권 탈탄소·수소화 개편을 위한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남중권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공동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남해안남중권 시군 면면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며 "우리 협의회가 남해안남중권 시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 거점형성과 영호남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했다.

협의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하동세계차엑스포 참여와 홍보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광양매화축제 등 시군 대표 축제에서 특산물 판매장, 홍보관 운영과 남해안남중권 누비고투어 운영 등 회원도시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강진, 적극 행정 '눈에 띄네'

배경봉 주무관, 업무 관련 도서 자비 제작·노하우 공유

강진군청 세무회계과에 근무하는 배경봉 주무관(공역 7급)이 담당 업무 관련 도서를 자비로 펴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적극 행정'에 더한 '신한 영향력'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계약 따라하기'라는 제목의 도서는 배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계약과 관련된 지식과 현장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집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의 대상은 공사, 물품, 용역으로, 계약의 종류는 수의계약, 견적입찰, 제한경쟁과 지정경쟁, 일방경쟁 등 세분화 돼 있어, 일반인은 물론,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도 업무 수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자체의 계약 업무는 단순히 지방계약법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



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자법' 등의 검토를 요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배 주무관은 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중장기적인 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지난 1년여를 집필활동에 쏟아부었고, 마침내 지난 20일 탈고를 거쳐, 사비로 200부의 서적을 제작해 군청과 읍면, 사업소에 배포했다.

배 주무관은 "이 책을 통해 앞으로 계약 업무를 담당할 동료나 사업을 발주하는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책이 낱아질 때까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나 동료 모두가 내용을 더하고 수정해 우리 군의 행정이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나주, 대상포진 백신 파격 지원 한다

만65세 이상 모든 시민...12~15만원-3만8000원

나주시가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격을 확 낮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본격 개시한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파격적인 접종비를 지원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만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민은 오는 26일부터 보건소,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3만8000원에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상포진 접종비용은 통상적으로 13~15만원(자기부담금100%)선이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비용 50%이상을절감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도 접종한다. 단 나주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일반 시민은 주민등록초본, 사회취약계층은 관련 증명서를 방문 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노인층에 발병률이 높으며 신경절을 따라 흥분성 수포형태로 나타나는데 극심한 통증, 발진을 수반해 예방접종이 필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상포진은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인 질병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백신접종을 망설였던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에 꼭 백신을 접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여름철 무더위 쉼터 조성

실외 정원 조성·쿨링포그·파고라 등 설치

함평군이 천지종합복지관을 여름철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

함평군은 생활 밀착형 정원사업으로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일원에 실외 정원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함평군은 광장과 녹지대 등 기존 부지를 정비해 블루애로우, 사초백목담, 꼬방사초 등 50종 8700여 주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했다.

또 주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인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쿨링포그는 옥외 냉방 효과뿐 아니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의 먼지를 흡착해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 여름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야외 정원을 감상하며 무더위도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완도 해양치유' SNS 네이밍 공개 모집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내달 4일까지 이메일 접수

완도군은 '완도 해양치유' SNS 소통 계정 네이밍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완도 해양치유'에 대해 참신하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SNS 소통 계정명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21일 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이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 해양치유 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다양한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중점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SNS 소통 계정을 신규 개설하여 소통을 강화하고자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심사 기준은 대표성, 창의성, 친화성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은 당선작 1명(상금 50만 원+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가작 2명(상금 20만 원+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입선 7명(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이다.

공모 신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wandomhc@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완도=이수희 기자

해남,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개소 추가 설치

어획물·소형어선 육상 이동 등 활용

해남군이 관내 어항 10개소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대를 추가 설치했다.

다목적 인양기는 평소에는 어획물 육상 인양 등 부족한 어촌 일손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의 육상 이동 등에 활용돼 어업인들의 활용도가 매우 큰 장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화산면 중정항 등 10개소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대를 설치한 가운데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어촌계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리비를 50%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이 다목적인양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목적인양기 배상책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목적 인양기는 물길 생산과 위판

에서부터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 패류 종패 살포, 어선수리·대피 등 다양한 역할로 어업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업현장에서 어선의 대형화 추세와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